데스크시각

전두환, 이번엔 제대로 심판하자

장 필 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다시 오월이다. 오월이면 광주사람들은 5·18앓이를 한다. 38년이 지났으니 상처가 아물 만도 한데 여전히 아픔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자명하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가 이뤄지고 트라우마가 치유되려면 우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나치의 사후 처리 과정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진상 규명을 한 후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 보상과 기념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5·18은 피해자 보상과 기념사업이 먼저였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책임자 처벌은 할 수가 없었다.

물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5·18과 관련된 첫 진상조사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영삼 정권 때인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발포 명령자 확인 등 진상 규명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단지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전두환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대한 책임만 물은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5~2007년에는 국방부가 나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에 나섰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직도 미진한 5·18 진상규명

세 차례의 진상 규명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는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는 5·18 관련자들의 증언과 군 기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 컸다.

진상 규명 실패는 5·18 왜곡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 판결로 5·18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했던지, 회고록을 통해 5·18 왜곡에 나서고 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5·18 항쟁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전두환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이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고 그가 학살의 핵심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거사 정리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다. 이전에도 5·18특별법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상에 관한 법률이었다. 진상 규명을 목표로 내건 5·18특별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5·18의 진실을 캐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5·18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밝혀낸 것도 소득이다. 오는 9월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아마도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는 점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최우선 목표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전두환의 분신인 장세동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증언이 또 다시 나오면서 '5·18 사전 기획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들은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의 계엄군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집단 발포 5시간 전에 전투태세를 뜻하는 '진도개 하나'를 발령하고 이미 실탄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군 문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신군부는 그동안 특전사의 우발적 발포라며 꼬리 자리기로 일관했는데 군 문서로 확인된 만큼 공식적인 계통으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

5·18앓이 치유 유일한 처방은

발포 명령자와 함께 5·18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암매장 규모와 장소를 확인하는 것도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과제다. 최근 38년 만에 처음으로 폭로된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진상 규명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는 28일로 예정된 전두환 재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여부만 가리겠지만 이를 계기로 학살 책임을 규명해 제대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1995년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필히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전두환 처벌과 진상 규명만이 5·18앓이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탐욕이라는 병

송 민 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지난겨울 아내가 독감으로 입원하였다. 그 바람에 네 명의 환자가 있는 좁은 병실을 1주일간 매일 찾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입원 사흘째 되던 날에 초등학교 2학년 손자 녀석이 병원을 찾아왔다. 손자가 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라고 연필로 쓴 봉투에는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열 장이 담겨 있었다. 손자가 용돈으로 모은 돈이다. 컴퓨터 게임만 즐기는 철부지인 줄 알았던 손자가 대견하기만 할머니는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고 말끝을 흐렸다. 평소 어른들의 말을 흘려듣는 줄만 알았던 철부지가 속이 꽉 찬 아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내가 입원한 1주일은 그간 잊고 지내던 아내에 대해 고마움을 새긴 날들이었다. 흔히들 나이 들면 다섯 가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오우가(五友歌)로 일건, 이처, 삼재, 사사, 오우(一健, 二妻, 三財, 四事, 五友)라는 것이다. 건강, 아내, 재산, 소일거리,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필수 무기가 아닐까 싶다.

정년 퇴임 후 10년. 사진을 찍고, 강의하고, 가끔 신문에 칼럼을 투고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빼꼼히 바다가 얼굴을 내밀고, 발아래 펼쳐지는 숲과 드넓은 녹지가 바로 우리 집 정원이다. 노후의 작은 행복에서 나는 오늘도 큰 기쁨을 얻는다.

돌이켜보면 시곗바늘처럼 일 속에 파묻혀 밤낮을 모르고 지냈던 날들이었다. 그러나 퇴임 후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났더니 나에겐 행복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중 많은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버릴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 욕심을 줄이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차츰 깨달아가는 중이다.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소유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점이다. '한나절 동안 걸어 돌아올 만큼 땅을 가지라'는 악마의 말에 저물도록 걷기만 하다 쓰러져 죽은 톨스토이 우화 속의 농부처럼 그렇게 죽거나 망할 때까지 '탐욕'을 키우기만 할 것인가.

미얀마에 가면 원숭이 잡는 덫이 있다고 한다. 그쪽 원주민 사이에서 원숭이의 탐욕을 이용한 간단한 사냥법이다.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좁고 배가 불룩한 유리병 안에 단단한 과일을 넣어둔 것이다. 물론 유리병은 나무 밑동에 단단히 묶어 놓는다. 얼마 후 가보면 원숭이는 영락없이 잡혀 있다. 냄새를 맡고 온 녀석은 손을 넣어서 과일을 잡고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일만 놓으면 손을 빼서 달아날 수 있으련만 끝내 놓지 않는다고 한다.

요즈음 가만히 보면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욕망의 덫'에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닌가 싶다. 원숭이가 과일의 달콤함에 파멸되듯이 우리 인간은 돈과 권력과 쾌락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 정말 편하게 존경받고 잘 살 것 같은 귀한 분들이 못 그러니 말이다. 청백리와 존경받는 기업인이 그리운 시절, 채우기에 급급한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꿈꿔본다.

기 고

작은 홀씨 날아가 드넓은 땅 위에 민들레 되길

이 승 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

몇 해 전 일본에 갔을 때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꽤 오랜 시간 버스가 움직이질 않았다. 차량이 많은 대도시가 아니었기에, 한국의 버스 운행 체계에 익숙했던 나는 슬슬 짜증이 났다. 그런데 잠시 후, 버스가 멈춘 이유를 알았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버스가 멈춘 이유는 지체 장애인으로 보이는 한 승객 때문이었다. 얇은 플라스틱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그 승객은 서너 명의 승객이 먼저 오른 뒤 힘겹게 몸을 움직여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얼핏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이 내 뇌리에 박힌 건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우선 버스 기사는 그 승객이 요금을 내고 자리에 완전히 앉아 편안한 자세를 잡을 때까지 출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는 책을 보는 등 각자 할 일에 열중했을 뿐, 장애인 승객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후 버스는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기사의 안내 멘트와 함께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약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몰려 들었다.

먼저 부끄러움은 내 직업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승객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3분을 참지 못하고 짜증이 났던 순간을 생각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반면에 일본의 일반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놀라웠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 장애인 승객이 자신 때문에 버스가 지연된다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장애인이 걸어가기에 먼 거리를 가는 데 버스를 이용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나뿐이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 장애 이상의 심적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배려가 부러울 뿐이었다.

2018년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장애인의 취업과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공단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가까워 온다. 처음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근무 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됨을 느낀다. 하지만 일본의 어느 소도시에서 일어난 잠깐의 경험은 결국 장애라는 것은 우리 사회 작은 부분, 일상생활에서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 즉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 관련 법규 등이다.

직장에서 교육받은 국민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 가정에서 장애에 대한 얘기가 무겁지 않은 주제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작은 홀씨가 민들레 되듯 장애가 사회 곳곳에서, 일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길 소망해 본다.

社 說

장세동도 광주 왔다…'5·18 기획설' 뒷받침

5·18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였던 '전두환의 분신' 장세동 씨가 항쟁 발발 일주일 전쯤 광주에 파견됐다가 진압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증언과 함께 '5·18 사전 기획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80년 5월 특전사 보안대장이었던 김충립(71) 씨는 최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장 씨가 그해 5월 9~10일께 특전사 작전과장·하사관·장병 등 네 명과 함께 광주에 내려갔다가 5·18이 끝난 뒤 서울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 씨가 내 방에 들러 '광주에 간다'고 하기에 '광주는 왜 가시오'라고 물으니 '그건 비밀이다'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김 씨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특전사 투입에 앞서 작전참모였던 장 씨가 광주에 급파됐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호용(88) 전 특전사령관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풍문을 접하고 진압 준비와 동향 확인을 위해 내려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은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맞물려 사전 기획설 및 발포 명령 규명 등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시 2군사령관이었던 진종채 장군과 전교사 작전참모였던 백남이 대령 등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노태우 등이 당시 광주 비행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두환의 최고 실세였던 장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5·18 관련 검찰 수사 등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두 사람의 광주 방문 여부와 역할에 대해 5·18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맥 빠진 광주시장 선거 다시 불붙게 되나

민주평화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김종배 전 국회의원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의당 나경채 전 공동위원장, 민중당 윤민호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4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전남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의 삼고초려 끝에 출마를 결심한 김 전 의원은 "광주 시청에 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자의 사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평화당이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김 전 의원) 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민주당 이 후보)의 대결 구도로 선거전을 치를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5월 이슈'와 '광주의 정체성'이 또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물난을 겪던 평화당에서는 애초 광주시장 후보 무공천 얘기까지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텃밭 재건과 민주당 견제라는 대의를 살려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다소 맥이 빠진 듯했던 광주시장 선거가 아연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비례대표 의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평화당은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어찌 됐든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치열한 '텃밭 쟁탈전'에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無 等 鼓

풍계리

"처녀지 풍계천을 헤엄치는 칠색 송어, 풍계천을 둘러싼 푸른 자작나무 숲, 맨발에 저적저적 밟히던 부드러운 촉감의 송이버섯 밭." 탈북 작가 김평강은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첫 장편 소설 '풍계리'를 통해 핵 실험장이 들어서기 전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이같이 묘사했다.

풍계리(豊溪里)는 그동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지역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6일 1차 핵 실험을 시작으로 이곳에서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핵 실험을 진행하며 한반도를 핵 위협에 빠트린 곳이다. 그런 풍계리 핵 실험장을 북한이 오는 23~25일 공개 폐기한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세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풍계리는 북한의 핵 실험장으로만 알려졌을 뿐 국내에 자세하게 소개된 적은 없었다. 단지 탈북 작가 김평강이 쓴 소설 '풍계리'를 통해 핵 실험장이 들어서기 이전의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해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소설 속 풍계리의 산천초목은 원래 수줍음을 머금은 처녀처럼 아름답다.

풍계리는 백두산 줄기의 만탑산 깊은 계곡에 자리한 마을로, 칠색 송어와 송이버섯이 지천에 깔렸다. 작가는 "송이를 구워 먹던 송송한 향기와 자작나무 연기 내음이 지금껏 사라지지 않고 슬프게 한다"고 했다.

소설에는 핵 실험장이 들어선 뒤 방사선 피폭 등으로 풍계리의 자연과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고 파멸에 이르고 있는지도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풍계리 핵 실험장이 오는 25일이면 폐기된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북쪽 지역 등 건물 상당수가 철거되는 등 폐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북한이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하루빨리 완전한 비핵화 실천 약속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이제 긴장이 사라지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풍계리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